

농촌주민의 외지인 농촌이주에 대한 태도 분석*

황정임** 최윤지***

Keywords

농촌 이주(rural in-migration), 이주민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s immigrants),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

Abstract

Recent research on rural in-migration has mostly been done from an in-migrants' perspective. This paper, however, centers on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in-migrants from outside. Rural residents' attitudes are important because they can significantly affect the success or failure of in-migrants' settling in rural areas. Analysis is conducted using data from Survey on Rural Living Indicators. Results indicate that key predictors of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in-migrants are engagement in agriculture, satisfaction with community environ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차례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연구 방법 및 자료 | |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 PJ008236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 서론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인구 유출보다 인구 유입이 많은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인구는 2005년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섭 외(2012)에 따르면, 농촌인구는 2010년 876만 명에서 2015년에 919만 명, 2020년에는 98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촌인구 증가의 견인차는 귀농·귀촌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27,008가구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축산식품부 2013). 귀농·귀촌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맞물리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수의 증가도 농촌인구의 증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¹.

지역의 성장과 활력을 위해서 적정 인구수의 유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증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그 자체가 농촌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섭(2012a)이 언급하고 있듯이, 농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고찰한다면 귀농·귀촌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자동적으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농촌으로 이주한 신규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과의 마찰이라 할 수 있다. 농촌 지역사회는 여전히 한국사회에 강하게 남아있는 문화적·사회적 규범, 연고주의적 사회관계의 특성 등을 지니고 있어 개방성,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안고 있다(김철규 등 2012). 이러한 문제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재이농 현상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농촌인구의 다원화 경향은 신·구 농촌주민 간 융합이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농촌 이주와 관련된 연구는 ‘농촌 이주민’²에 초점을 맞추

¹ 농림수산식품부(2009)에 따르면, 2020년에는 여성농가인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이른다.

² ‘농촌 이주민’이라 할 때 이주의 방향성에 대한 혼선의 여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rural in-migrants)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어 온 경향이 뚜렷했다. 농촌 이주민의 특성,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거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이는 농촌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감안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역도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시각으로 농촌 이주 현상을 진단한 연구들이 부족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농촌 이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은 기존 주민들과의 원활한 사회관계의 형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로써 궁극적인 농촌사회 활력 제고의 시너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농촌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외지인의 농촌 이주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 이주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책 등 농촌사회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농촌 이주 관련 연구 동향

인구이동은 인간의 주체적 행위로서 경제, 환경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선택의 과정이다. 주거이동의 동기로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동의 의사결정은 현거주지에서의 배출압력과 여러 다른 목적지로부터의 흡인력과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Lee 1966). 인구이동은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의 자연적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의 많은 국가에서 인구현상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최은영, 조대현 2005). 또한, 인구이동은 단순히 개인 혹은 가구의 장소적 이전뿐만 아니라, 이주자들 각각이 지니는 속성들을 함께 가지고 이동함으로써 공간적 패턴을 재구성하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제 집단의 재배치를 유도하는 과정(임창호 등 2002)인 연유로 사회과학의 전 부분에 걸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촌으로의 이주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른 까닭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이전까

지만 해도 이촌향도 현상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외환위기 직후 경제난으로 인해 귀농·귀촌가구가 급증하면서 한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오수호 2011). 그러나 최근의 농촌 이주 증가 현상은 농촌이 갖는 고유한 가치에 대한 선호 또는 추구가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성주인 등 2012).

농촌 이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농촌 이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접근과 인구이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려는 거시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미시적·거시적 인구이동 이론을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 혈연 및 연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거리 등이 농촌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순덕 등 2005; 이희찬, 김현 2006; 서수복 2010; 정일홍, 이성우 2010).

농촌 이주민의 정착 과정을 탐색한 연구 주제 또한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서만용, 구자인 2005; 박공주 등 2007; 강대구 2007; 김철규 등 2011; 최윤지 등 2012; 황정임 등 2012). 이 가운데 김철규 등(2011)은 귀농·귀촌 연구 가운데 최초로 원주민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것을 차별성으로 부각시키면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인식 차이를 밝히고 사회적 관계가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중요한 요인임을 역설하였다. 이밖에도 농촌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 또는 현장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강대구 등 2006; 금창영 2011; 오수호 2012; 조창완 2009; 차광주 2010).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이재철, 이도선 2006; 조창완 등 2007; 김정섭 2009; 유학렬 2010; 이민수 등 2010; 성주인 등 2012; 성주인 등 2013). 이들 연구들은 귀농·귀촌 지원에 있어 창업, 일자리 등 경제적 측면, 주거, 기반시설 등 기초생활환경 측면, 교육·문화·복지 측면 등 다각적,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농촌 이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 주제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농촌 이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농촌 이주민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국한되어 있다. 인구이동의 영향은 이주지역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그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 농촌 이주민의 이주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때(김정섭 등 2012b), 기존 농촌 주민의 태도와 역할이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농촌 이주민뿐만 아니라 기존 농촌 주민에 초점을 맞춘 연

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진양명숙(2008)도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귀농 연구가 귀농자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토착 주민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농촌 이주 도시민을 맞아들이고, 원활한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연구의 방향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2.2. 외지인 이주에 대한 기존 주민의 태도 관련 연구

역도시화로 인해 기존 농촌 주민과 신규 이주민 간 가치관, 생활양식의 차이가 초래한 충돌과 갈등에 관한 연구 사례는 국외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Forsythe 1980; Cloke and Thrift 1987; Cloke et al. 1998; Halfacree and Boyle 1998; Smith 2000; Panelli 2006). 그러나 농촌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 이주 현상을 분석한 연구는 국외에서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위협 이론(Threat theory)과 접촉 이론(Contact theory)이 있다. 두 가지 이론을 농촌 이주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구 농촌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방향을 설명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가지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협 이론은 인구의 이질성 증가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Fernandez and Neiman 2010). 우리나라의 농촌 이주 현상에 적용해보자면, 농촌지역으로 새롭게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주민들과는 이질적인 특성이 강화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신·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주민들이 기존의 주민들과 사회적으로 연대하지 못할 때,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사회적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협 이론을 실증한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이론의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Gilliam et al. 2002; Baybeck 2006; Gay 2006).

한편 접촉 이론에서는 인구의 이질성 증가가 경쟁과 갈등으로 표출되기보다는 상호 교류를 증가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며, 이는 개인들로 하여금 타인들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Kinder and Mendelberg 1995). 위협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인구의

이질성의 강화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Marschall and Stolle 2004; Tolbert and Hero 2001).

기존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외지인의 이주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직까지 국내외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관점과 동일한 연구 즉, 농촌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거의 없는 연유로 일반적인 이주민 또는 이민자에 대한 기존 주민의 태도와 관련성을 가지는 개인적인 특성들을 검토하였다.

연령은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외부 인구 유입에 대한 태도와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정(+)의 관계이거나 부(-)의 관계, 혹은 아무런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Chandler and Tsai 2001; Citrin et al. 1997; Scheve and Slaughter 2001).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외지인들에 대해 보다 적대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Sidanius et al. 2001). 사회적 활동이 많은 남성들이 새로운 이주민을 경계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지인들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도 제기된 바 있다(Espenshade and Hempstead 1996; Wilson 2001).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외지인의 유입에 부정적(Economic Research Service 2004; Rutenbach 2010)인데 반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Haubert and Fussell 2006; Pantoja 2006; Rutenbach 2010). 이는 이주민 또는 이민자들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을 전제로, 경합 관계에 있는 기존 주민들이 경제적인 상황, 즉, 소득원, 일자리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인 요인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Esses et al. 1998; Esses et al. 2012).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이주민과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Rutenbach 2010).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외지인에 대한 태도는 차별적이다(Pettigrew et al. 2007). 도시 지역 같이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잦은 지역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낮은 반면, 외지인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외지인들의 인구 유입에는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하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뢰 인식은 외부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요인이다(Rutenbach 2010).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이주민의 특성에 대한 수용력이 높으며, 쉽게 관계를 맺고, ‘다름’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Rutenbach(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뢰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지역생활 환경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외부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변인들을 우리나라 농촌 실정을 고려하여 분석 모형에 통제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외지인의 이주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자료

3.1.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수행 시, 종속변수가 선형이 아닌 이산적(discrete)일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모형은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또는 로짓 모형(logit model)의 확률모형이다. 확률모형은 McFadden(1974)에 의해 이론적으로 개발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종속변수가 본 연구와 같이 리커트형(likert-type scale)의 순서형일 경우에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과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빗 모형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과 함께 연계함수로 표준누적정규분포함수의 역함수의 형태를 취하며, 로짓 모형의 등분산성 가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성우 등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농촌 주민들의 농촌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y_i^*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i^* = x_i\beta + \varepsilon_i \quad \dots\dots\dots \text{수식 (1)}$$

여기서, x_i 는 독립변수 벡터, β 는 추정계수 벡터, ε_i 는 오차항을 나타내는데,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 y_i^* 는 실제 관측되지 않은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이고, y_i^* 와 관찰 가능한 응답 y 와는 다음의 수식 (2)와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y_i &= 1 \text{ if } y_i^* \leq u_1 (= 0) \\
y_i &= 2 \text{ if } u_1 < y_i^* \leq u_2 \\
y_i &= 3 \text{ if } u_2 < y_i^* \leq u_3 \\
&\vdots \\
y_i &= J \text{ if } u_{J-1} < y_i^*
\end{aligned}
\quad \dots\dots\dots \text{수식 (2)}$$

여기서 $u_1 \sim u_{J-1}$ 은 y_i^* 의 경계값(threshold)을 나타내며, 총 J 개의 관찰 가능한 응답들에 대해 j 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된다. 경험의 법칙에 따라 $u_1 = 0$ 으로 정규화를 하고, 수식 (1)과 수식 (2)를 합치게 되면, 수식 (3)과 같은 확률계산식을 유도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Prob}(y_i = 1) &= \phi(-x_i\beta) \\
\text{Prob}(y_i = 2) &= \phi(u_2 - x_i\beta) - \phi(-x_i\beta) \\
\text{Prob}(y_i = 3) &= \phi(u_3 - x_i\beta) - \phi(u_2 - x_i\beta) \\
&\vdots \\
\text{Prob}(y_i = J) &= 1 - \phi(u_{J-1} - x_i\beta)
\end{aligned}
\quad \dots\dots\dots \text{수식 (3)}$$

여기서 단, $\phi(\cdot)$ 는 표준정규분포함수이고, 수식 (3)을 활용하여 독립변수별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는 log-likelihood 함수를 활용하였다.

3.2. 자료 및 변인

본 연구는 농촌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촌생활지표조사 자료 중 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촌생활지표조사는 전국 농촌(200개 읍면, 400개 리) 가구 중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추출된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인구 및 사회, 주거 및 환경 등 10개 부문 15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2011년에 조사된 인구 및 사회, 가족생활, 여가생활, 사회복지, 지역개발 및 정보화의 5개 부문 가운데 관련되는 조사 항목들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적용된 변인들의 설명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종속변인은 ‘외지인의 이주에 대한 태도’이다. 농촌생활지표조사 문항을 그대로 옮기면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의 동네에 이사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반대’에서 ‘매우 찬성’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 개의 척도로 축약하였는데, ‘매우 반대’와 ‘반대’는 반대로, ‘보통’은 보통으로, 그리고 ‘찬성’과 ‘매우 찬성’은 찬성으로 재정리하였다³.

표 1. 변인 설명

변인			내용
종속변인	외지인의 이주에 대한 태도		반대=1, 보통=2, 찬성=3
독립변인	인구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Ref.)
		연령	30대 이하(Ref.) 40대 50대 60대 이상
	사회 경제적 특성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Ref.)
		연평균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Ref.) 2,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영농 여부	농가=1, 비농가=0(Ref.)
	거주지역	읍면 여부	면지역=1, 읍지역=0(Ref.)
	사회통합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	5점 척도(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공동체 의식 수준	

※ Ref. = 참조집단

독립변인들은 앞서 논의한 외지인 이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과 연령을 포함하였으며,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학력, 연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영농 여부를 통제하였다. 아울러, 거주 지역 변인으로 읍면 여부를 통제하였으며, 주거환경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 수준을 사회통합 변인으로 적용하였다.

이 가운데 사회통합 변인은 Rutenbach(2010)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는 농촌생활지표조사에서 주거환경, 교육환경, 대중교통환경, 쓰레기처리 (및 자

3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를 3점 척도로 변환한 이유는 ‘매우 반대’와 ‘매우 찬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1,820개의 표본 중 ‘매우 찬성’은 153가구, ‘매우 반대’는 15가구에 불과하였다.

연) 환경, 보건의료환경, 문화체육여가환경, 소득원/일자리환경, 이웃환경의 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항목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는 거주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한다. 공동체 의식 수준은 농촌생활지표조사 중 마을의 공동활동과 관련된 5개 항목들⁴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결속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 수준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4. 분석결과

아래의 <표 2>는 독립변인들의 기초 통계치이며, 분석에 유효한 표본수는 1,820개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농촌 이주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태도는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냈으며, 개인 간 편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변인들 중 학력은 중졸 이하가 66%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21%, 대졸 이상 13%로 나타났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66%였다. 영농여부에서는 농가가 58%로 비농가보다 많았으며, 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5%로서 읍지역보다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 수준은 2.9점과 3.2점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⁴ 5개 항목은 ‘집을 비우는 동안 집보기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나는 우리 마을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을에서 나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편이다’, ‘마을 주민들은 공동의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다’, ‘마을의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이다.

표 2. 변인의 기초 통계치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외지인의 이주에 대한 태도			2.3797	0.7044	1	3
인구 특성	성별		0.5033	0.5001	0	1
	연령	30대 이하	0.0462	0.2099	0	1
		40대	0.0940	0.2918	0	1
		50대	0.2005	0.4005	0	1
		60대 이상	0.6544	0.4757	0	1
사회 경제적 특성	학력	중졸 이하	0.6582	0.4744	0	1
		고졸	0.2126	0.4093	0	1
		대졸 이상	0.1291	0.2691	0	1
	연평균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	0.6582	0.4744	0	1
		2,000~3,000만원 미만	0.1308	0.3372	0	1
		3,000~5,000만원 미만	0.1374	0.3443	0	1
		5,000만원 이상	0.0736	0.2612	0	1
	영농 여부		0.5813	0.4935	0	1
거주지역	읍면 여부	0.3549	0.4786	0	1	
사회통합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		2.8898	0.6812	0	5
	공동체 의식 수준		3.2427	0.7081	0	5
N			1,820			

<표 3>은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χ^2 값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인별 외지인의 이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은 외지인들의 농촌 이주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외 연구에서, 남성들이 외지인의 이주로 인해 경제적인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다.

연령 변인에서는 30대 이하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외지인의 이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연령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표 3. 회귀분석 결과

변인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			0.6040 ***	0.1957
인구학적	성별		0.0609	0.0569
	연령	40대	0.1928	0.1511
		50대	0.2478 *	0.1426
		60대 이상	0.1184	0.1411
사회 경제적	학력	중졸 이하	-0.1767 *	0.0931
		고졸	-0.0923	0.0981
	연평균 가구소득	2,000~3,000만원 미만	0.0872	0.0889
		3,000~5,000만원 미만	-0.0108	0.0907
		5,000만원 이상	-0.0596	0.1112
	영농 여부		-0.1961 ***	0.0605
거주지역	읍면 여부	-0.0104	0.0582	
사회통합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		0.1075 ***	0.0413
	공동체 의식 수준		0.0919 ***	0.0417
μ			1.1148***	
χ^2			26.7419***	
Likelihood Ratio			36.3319***	
-2 Log L			3555.155	

* p<0.1, ** p<0.05, *** p<0.01

사회경제적 변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력이 낮을수록 외지인의 이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중졸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와 같이 높은 교육 수준이 이주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연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외지인의 유입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소득 계층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연유로 소득과 외지인의 유입에 대한 태도 간에는 뚜렷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지인의 이주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언급한 선행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영농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서, 농가가 비농가에 비해 외지인의 농촌 유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또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은 외지인의 유입이 영농활동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

적인 영향이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지역보다는 읍지역에서 외지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 농촌에서는 거주지역 특성이 외지인들의 이주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외지인의 농촌 이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높은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가 높은 농촌 주민들은 외지인의 유입이 현재의 생활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공동체에 대한 결속 의식이 높은 농촌 거주자들이 외지인을 지역에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지인이 유입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문제 해결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는 주어진 독립변수의 값에 대한 확률예측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통제된 모든 독립변인들이 평균조건일 때, 농촌 주민들은 외지인의 농촌 이주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중립적인 의견을 보인 38%의 보통을 제외하면 찬성이 47%로 반대의 15%에 비해 약 3배가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역도시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주요 독립변수들에 대한 확률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립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보통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며, 상반된 태도인 반대와 찬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비농가가 농가에 비해서 찬성의 확률은 8% 높았으며 반대의 확률은 5%가 낮았다.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 수준 변인에서의 확률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지인의 이주에 대해 반대의 확률은 떨어지는 반면, 찬성의 확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공동체 의식 수준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수의 값에 대한 확률예측 결과

구분		Prob y=1(반대)	Prob y=2(보통)	Prob y=3(찬성)
평균 조건		0.15	0.38	0.47
<영농 여부>	농가	0.17	0.39	0.44
	비농가	0.12	0.36	0.52

척도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			<공동체 의식 수준>		
	Prob y=1 (반대)	Prob y=2 (보통)	Prob y=3 (찬성)	Prob y=1 (반대)	Prob y=2 (보통)	Prob y=3 (찬성)
1점	0.20	0.41	0.39	0.20	0.41	0.39
2점	0.17	0.39	0.44	0.18	0.40	0.43
3점	0.14	0.38	0.48	0.15	0.38	0.46
4점	0.12	0.36	0.52	0.13	0.37	0.50
5점	0.10	0.34	0.56	0.11	0.35	0.54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 유입 증가 현상을 배경으로 농촌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 외지인의 이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인이 비농업인에 비해 외지인의 농촌으로의 유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농촌의 근본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귀농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인이 외지인의 농촌 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귀농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새롭게 영농에 진입하는 귀농자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영농 경험이 풍부한 선배 농업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농업인들이 귀농인들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나아가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농촌 주민들의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는 외지인의 농촌 이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생활 만족도가 높은 주민들은 대체적

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외지인에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한 것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마을개발사업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의 욕구가 고루 충족되는 정주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농촌개발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외지인들의 이주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농촌 이주의 활성화와 농촌 이주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농촌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기존의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농촌 주민일수록 외지인의 농촌 이주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 공동활동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외지인 유입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 주민들이 늘어난다면, 마을 공동체에는 더욱 활기가 넘칠 것이고, 외지인 유입을 경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공동체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의 회복은 외지인 유입의 활성화에도 유효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서는 농촌 주민의 성별,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이 외지인의 이주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에서 농촌 주민의 관점에서 외지인 이주 현상을 구명하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촌 이주의 증가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다. 농촌 이주라는 사회현상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합적인 관점의 견지가 필요하다. 특히, 귀농·귀촌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존의 농촌 주민들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요구된다. 아울러 신·구 농촌 이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대구, 김정남, 김민수, 이웅, 변규식. 2006. 「최근 귀농 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연구」. 농림부.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금창영. 2011. “귀농·귀촌 과정에서 갈등요인과 해결방법.” 「귀농·귀촌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 (2011.11.5.) 자료집」.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김정섭. 2012a. “귀농·귀촌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사회적 관계’의 관점에서.” 「강원농수산포럼 주제발표자료」 31-49.
김정섭. 2012b.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체계화 방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정섭, 임지은, 박천수. 2012. “농어촌 지역의 인구·산업·일자리 동향과 전망.” 「2012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박민수.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 한국사회학회.
김철규, 김태현, 김홍주, 윤수종, 박민선. 2012. 「새로운 농촌사회학」. 집문당.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촌다문화후계세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2. 「보도자료 - 지난 해 귀농·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2012. 2. 23.)」.
농림축산식품부. 2013. 「보도자료 -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2013. 3. 28.)」.
농촌진흥청. 2011. 「2011 농촌생활지표조사 보고서」.
박공주, 김양희, 박정윤. 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9-21.
서만용, 구자인. 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12(2): 145-171.
서수복. 2010.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결정요인 분석.” 「국토연구」 64: 21-37.
성주인, 김성아.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2012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박문호. 2013.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수호., 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동향: 1996~2010년의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2): 77-90.
오수호. 2012. “농촌지향 이주 가구의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101-117.
유학렬. 2010.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이정화. 2005. “도시장년층의 은퇴후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 「한국노년학」 25(3): 139-153.

- 이민수, 이승형, 김명룡, 김정섭. 2010.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 이재철, 이도선. 2006.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이희찬, 김현. 2006.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의향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연구」 13(2): 127-149.
- 임창호, 이창무, 손정락. 2002. “서울 주변지역의 이주특성 분석.” 「국토계획」 37(4): 95-108.
- 정일홍, 이성우. 2010. “농촌이주 도시민의 특성과 공간적 선호.” 「한국농촌사회학회」 20(2): 163-190.
- 조창완·김희승·서정원. 2007. 「전남지역 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방안」. 전남발전연구원.
- 조창완. 2009. “전남 귀농 활성화 방안.” 「리전인포」 제171호. 전남발전연구원.
- 진양명숙. 2008. “짧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6(4): 105-131.
- 차광주. 2010. “현장에서 본 귀농 활성화 방안.” 「농업전망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윤지, 황정임, 한송희. 2012. “도시 이주민의 농촌 지역커뮤니티 적응 실태.” 「농촌지도와 개발」 19(1): 29-48.
- 최은영, 조대현. 2005. “서울 강남구의 경제적 장벽과 인구이동 특성.” 「서울도시연구」 6(4): 1-20.
- 황정임, 최윤지, 조현민, 윤순덕. 2012. “농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 만족도와 의 관계 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8(4): 729-764.
- Baybeck, B. 2006. “Sorting Out the Competing Effects of Racial Context.” *The Journal of Politics* 68(2): 386-396.
- Chandler, C. R. and Y. M. Tsai. 2001. “Social Factors Influencing Immigration Attitud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General Social Survey.”, *Social Science Journal* 38(2): 177-188.
- Citrin, J., Green, D. P., Muste, C. and C. Wong. 1997. “Public Opinion towards Immigration Reform: The Role of Economic Motivations.” *Journal of Politics* 59(3): 858-881.
- Cloke, P. J. and N. J. Thrift. 1987. “Intra-class Conflict in Rural Areas.” *Journal of Rural Studies* 3: 321-334.
- Cloke, P. J., Goodwin, M. and P. Milbourne. 1998. “Inside Looking Out; Outside Looking In. Different Experiences of cultural Competence in Rural Lifestyles.”, In Cloke, P. J. and Halfacree, K. (Eds.) *Migration into Rural Areas*. Wiley.
-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4. *Rural Poverty at a Glan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Espenshade, T. J. and K. Hempstead. 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2): 535-570.
- Esses, V. M., Jackson, L. M. and T. L. Armsrong.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Esses, V. M., Brochu, P. M. and K. R. Dickson. 2012. “Economic Costs, Economic Benefit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 Policy* 12(1): 133-137.
- Fernandez, K. E. and M. Neiman. 2010. "Examining the Context of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 Reanalysis of the Threat/Contact hypotheses." A Paper Prepared for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Forsythe, D. 1980. "Urban Incomers and Rural Change." *Sociologia Ruralis* 20: 287-305.
- Gay, C. 2006. "Seeing Difference: The Effect of Economic Disparity on Black Attitudes toward Latino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4): 982-997.
- Gilliam, F. D., Valentino, N. A. and M. N. Beckmann. 2002. "Where You Live and What You Watch: The Impact of Racial Proximity and Local Television News on Attitudes about Race and Crim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5(4): 755-780.
- Halfacree, K. and P. Boyle. 1998. "Migration, rurality and the post-productivist countryside." In P. Boyle & K. Halfacree (Eds.), *Migration into rural areas: Theories and issues*. Wiley.
- Haubert, J., and E. Fussell. 2006. "Explaining Pro-Immigrant Sentiment in the U.S.: Social Class, Cosmopolitanism, and Perceptions of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3): 489-507.
- Kinder, D. R. and T. Mendelberg. 1995. "Cracks in American Apartheid: The Political Impact of Prejudice among Desegregated Whites." *The Journal of Politics* 57(2): 402-424.
- Lee, S. E.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 Marschall, M. J. and D. Stolle. 2004. "Race and The City: Neighborhood Context and the Development of Generalized Trust." *Political Behavior* 26(2): 125-153.
- McFadden, D. 1974.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Academic Press.
- Panelli, R. 2006. "Rural society." In P. Cloke, T. Marsden, & P. Mooney (Eds.) *Handbook of Rural Studies*. Sage.
- Pantoja, A. 2006. "Against the Tide? Core American Values and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licy in the Mid-1990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2(3): 515-531.
- Pettigrew, T.F., Christ, O., Wagner, U. and J. Stellmacher. 2007. "Direct and Indirect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Prejudice : A Normative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4): 411-425.
- Rustenbach, E. 2010. "Sources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 Europe : A multi-Level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1): 53-77.
- Scheve, K. and M. Slaughter, M. 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1): 133-145.
- Sidanius, J., Levin, S., Federico, C. M. and F. Pratto. 2001. "Legitimizing ideologies: the social dominance approach." In Jost J.T. and Major, B. (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M. D. and R. S. Krannich, ““Culture Clash” Revisited: Newcomer and Longer-Term Residents’ Attitudes Toward Land Us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in Rural Communities in the Rocky Mountain West.” *Rural Sociology* 65(3): 396-421.
- Tolbert, C. J. and R. E. Hero. 2001. “Dealing With Diversity: Racial/Ethnic Context and Social Policy Chang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3): 571-604.
- Wilson, T. C. 2001. “Americans’ views on immigration policy: testing the role of threatened Group interests.” *Sociological Perspectives* 44(4): 485-501.

원고 접수일: 2013년 09월 02일
원고 심사일: 2013년 09월 09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2월 20일